

프리미어12 준우승 김경문호 '절반의 성공'

도쿄올림픽 출전권 획득·일본에 2차례 패배는 숙제 이정후·김하성·강백호 등 영건들의 발견은 고무적

김경문 감독이 2020년 도쿄올림픽 본선 출전권 획득이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하고 귀국했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 대표팀은 1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한국 야구는 전날 끝난 2019 세계 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에서 대만, 호주를 따돌리고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1위로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

이로써 한국 야구는 도쿄올림픽 티켓 획득이라는 1차 목표는 달성했지만, 일본, 대만전에서 전패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한국은 슈퍼라운드 2차전에서 한수 아래로 여긴 대만에 0-7의 충격적인 완패를 당하며 자존심을 구겼다.

영원한 라이벌 일본과는 슈퍼라운드 마지막 경기와 결승에서 각각 8-10, 3-5로 2점 차 패배를 당했다.

한국 야구는 해결사와 차세대에 이스 발골이라는 큰 숙제를 안고 내년 도쿄올림픽을 기다리게 됐다.

한국은 4번 타자로 중용된 박병호와 6번 타자 양의지의 부진이 가장 뼈아팠다. 올해 프로야구에서 홈런 33개를 쳐 홈런왕에 오른 박병호가 기대했던 대포를 생산하지 못하고 타율 0.179에 2타점이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대회를 마감했다.

타격왕 양의지의 성적은 타율 0.087에 1타점으로 더 나빴다.

다만 한국 야구는 20대 초중반 젊은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경쟁력을 보이며 희망을 발견했다.

이번 대회 대표팀 상위타선을 맡은 이정후와 김하성은 나란히 대회 베스트11에 선정됐다. 처음으로 성인 대표팀에 선발된 강백호 또한 제한된 기회 속에서도 날카로운 타구를 날리며 다음 국제대회를 기대케 했다.



프리미어12 슈퍼라운드 결승전에서 일본에 3-5로 패하며 준우승을 차지한 한국 야구 대표팀 김경문 감독(오른쪽)이 은메달을 목에 건 선수들 앞을 지나가고 있다.

계투진에서는 조상우가 포스트시즌에서의 활약을 이어가며 오승환의 뒤를 잇는 새 국가대표 마무리로서 자리매김했다.

지난달 10일 소집을 시작으로 가나인 프리미어12 일정을 마친 대표팀은 이제 도쿄올림픽 준비 체제로 전환한다.

KBO 기술위원회와 김경문 감독

은 출전국이 최종 결정되는 2020년 4월 초부터 대표 선수 선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KBO리그 정규리그는 3월 28일 막을 올린다.

도쿄올림픽 야구 종목은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요코하마 스타디움과 후쿠시마현 아즈마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몸 푸는 '최강' 브라질 공격수들 브라질 축구대표팀의 윌리안(셀시, 맨 왼쪽), 호베르투 피르미누(리베루, 왼쪽 두번째) 등 선수들이 17일(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알 나흐얀 스타디움에서 한국과의 경기를 이틀 앞두고 훈련을 하고 있다.

벤투호, 브라질과 초고난도 모의고사

강팀에 강한 태극전사들 손흥민·황희찬 발끝 주목

벤투호가 '완전체'로 맞는 올해 마지막 평가전에서 '남미 최강' 브라질을 상대로 초고난도 모의고사를 치른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오늘 오후 10시 30분(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모하메드 빈 자예드 스타디움에서 브라질과 맞대결 한다.

브라질은 자타공인 최강의 팀이다. 역대 상대 전적(1승 4패 한국 열세)과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브라질 3위·한국 39위)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전력의 격차는 크다.

게다가 브라질은 지난 6월 열린 2019 코파 아메리카(남미축구선수권)에서 우승한 뒤 5경기 연속 무승(3무 2패)의 부진에 빠져있어 잔뜩 득이 올라 있다.

벤투호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에서 한 번도 실점하지 않았다.

상대가 강팀이 아니었지만 총 4경기 중 3경기를 원점으로 치렀다는 점에서 무실점 행진은 고무적이다.

많은 비판을 받는 공격 전개 능력과 골 결정력 등과는 별개로, 벤투호의 수비조직력 만큼은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브라질은 격이 다른 팀이다. 벤투호 수비의 '글로벌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스파링 상대다.

한국도 브라질 만큼이나 반전이 절실한 상황이다. 북반구에 이어 레바논전에서도 답답한 경기 끝에 무득점 무승부에 그쳐 비난 여론이 높다.

브라질에 승리한다면 한 번에 팬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지만, 절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에이스' 손흥민(토트넘)이 이번에도 벤투호의 공격을 이끌 전망이다.

을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경기에서 피르미누가 속한 '다덴덴 챔피언' 리버풀을 상대로 골을 터뜨린 황희찬(잘츠부르크)의 '황소' 돌파도 기대된다.

연합뉴스



전국학교스포츠클럽 농구대회에 참가한 함덕중학교 학생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함덕중학교 제공

함덕중 남녀 농구부 나란히 우승 차지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지난 15~18일 경북 상주

함덕중학교(교장 박종일)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경상북도교육청·대한체육회·경북체육회·경북농구협회 주관으로 지난 15~18일 경상북도 상주에서 열린 제12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농구대회에서 남중부와 여중부에서 동반 1위를 차지했다.

함덕중은 그동안 학교스포츠클럽의 일환으로 농구부 활동을 이어왔다.

학생들이 매일 아침 등교하면 체육관으로 가서 스스로 농구에 몰입하며 체력을 기르고 서로를 격려하며 스포츠 활동을 일상화하도록 이끌었다. 특히 이번 대회는 3학년 기말고사를 앞둔 시기에서 제주 대표로 출전하는 데 부담이 따랐지만 공부를 병행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박종일 교장은 "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학생들이 전국 동반 우승이라는 쾌거를 달성해 다른 친구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선기자 sunny@ihalla.com

'사브리 어벤저스' 월드컵 단체전 우승

세계선수권·AG 멤버 재결성

한국 펜싱 남자 사브리 대표팀이 새 시즌 첫 월드컵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최강 전력을 재확인했다.

구본길, 김정환(국민체육진흥공단), 오상욱(성남시청), 김준호(화성시청)로 구성된 남자 사브리 대표팀은 17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국제펜싱연맹(FIE) 월드컵 단체전에서 우승했다.

한국 남자 사브르는 이 네 명의 선수로 2017~2018년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사상 첫 우승과 2연패를 달성하고, 자카르타·팔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전성기를 활짝 열었다. 이때부터 단체전 세계랭킹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다.

아시아계급 직후인 2018-2019시즌 김정환이 부상 치료와 학업 등을 이유로 빠진 대표팀에 하한솔(성남시청)이 가세해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 3연패 등을 합작했다.

이번 2019-2020시즌 김정환이 다시 태극마크를 달면서 단체전 멤버도 김정환을 포함한 이전 구성으로 돌아왔고, 첫 대회부터 금메달을 목에 걸어 변하지 않은 호흡을 자랑했다.

8강전에서 중국을 45-34, 준결승에서 러시아를 45-39로 제압하고 세계 랭킹 2위 헝가리와 결승에서 45-41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한국인의 밥상(재) 11: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 6: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꽃길만 걸어요(재) 9:40 무한리얼 샐러드 10:40 지구촌 뉴스 11:00 조선로코·녹두전(재) 11:00 조선로코·녹두전(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모두 다 콩따리 8:3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UHD 특선 드라마 W(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0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아침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맛 좀 보실래요 9:10 좋은아침 10:10 SBS 뉴스 10:30 살맛 나는 오늘 11:00 우리끼리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7:30 뽀롱뽀롱 뽀로로 8:00 땀방울 유지원 9:30 킨더랜드 10:00 자식의 기쁨 12:00 EBS 정오뉴스 14:55 꼬마버스 타요 15:10 로보카 폴리 15:55 출동! 슈퍼윙스 16:10 최고다! 호기심 딱지 4 16:40 땀방울 친구들 17:30 페파 피그 19:00 스페이더맨 20:00 머털도사
12:00 KBS 뉴스12 13:00 KBS 네트워크 특선 거북이 뇌수 13:50 KBS 재능방송센터 14:00 KBS 뉴스 9 14:10 팔도방송 스페셜(재) 14:30 제12회 전국 학교스포츠클럽대회 16:00 시사간전 17:00 KBS 뉴스5 17:30 동물의 왕국	12:10 생생정보 스페셜 12:45 살맛나는 남자들(재) 13:50 다큐 인사이트(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자동공부책상 위키2 15:30 TV 유치원 16:00 무한리얼 샐러드(재) 17:00 다큐 공간(재)	12:00 12 MBC 뉴스 12:20 자치분권으로 꿈꾸다 스페셜 13:20 웰로즈 동물교실 2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뽀롱뽀롱 모두 다 놀자 16:20 모두 다 콩따리(재) 17:00 SBS 유당 17:05 MBC 뉴스 17:2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17:55 지역MBC 공동기획 농업이 미래다	12:00 SBS 12뉴스 12:50 민방 네트워크 뉴스 12:40 JIBS 뉴스 12:50 불타는 청춘(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영재발굴단(재) 17:00 SBS 유당 17:35 JIBS 뉴스 17:50 VIP(재)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김기타의 아침뉴스 7:30 김현정의 뉴스쇼 9:05 김대형가게 이만열입니다 12:00 CBS나눔통신 12:05 찬양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샘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0 시사자극점판옵티다 21:35 다오강간 22:05 백원경의 가스펠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10 보물섬 20:00 특집 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21:40 KBS 뉴스 9 22:40 역사재널 그날 23:35 더 라이브	18:00 KBS 경제타임 18:30 2TV 생생정보 19:50 유한 모녀 20:30 글로벌24 20:55 거리의 만찬(재) 22:00 조선로코·녹두전 22:35 조선로코·녹두전 23:10 슬기로운 어린이 생활	18:55 MBC 뉴스데스크 19:55 MBC특집 국인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21:50 판매중계 1부 22:30 판매중계 2부 23:10 PD수첩	19:00 2019 제주 정책박람회 토론회 20:00 SBS 8 뉴스 20:35 JIBS 8 뉴스 20:55 VIP 21:40 VIP 22:15 축구 국가대표 친선경기	7:00 KCTV 뉴스 8:00 대한민국 구석구석 8:30 방송콘텐츠 경연대회 '꿈을 그리다' 9:00 KCTV 뉴스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3:00 KCTV 13시 뉴스 14: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7:40 KCTV 시청자세상 18:00 대한민국 구석구석 19:00 KCTV 뉴스7 21:00 KCTV 종합뉴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오늘의 운세 19일

김홍상 지단(해티)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시간이 나를 기다려 주지 않으니 주변에서 해법을 찾아봐라. 48년 능력이 오르고 이익이 따르니 자신을 갖고 뛰어들. 60년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고 타인의 일에 간섭은 금물. 72년 동업 제의시 정중함 거절도 필요하며 자격준비하여 독립사업 길. 84년 직장, 취업의 소식을 접하고 시원함이 생긴다.

37년 책임이 무겁지만 원활히 해결하고 직감력과 노하우로 부러움을 얻기도 한다. 49년 결혼 또는 집안간 상견례 등으로 바쁘거나 소개 중매가 성사된다. 61년 본인이나 자녀 중 경사가 있고 축하 받을 일이 있다. 73년 하루가 순탄하고 활동이 분주한 날. 85년 명예를 회복하려고 고민하게 된다.

38년 잘 알지 못하면 점검하는 것을 삼가라. 망신수가 보인다. 50년 아랫사람의 말도 나에게 중요하네 경청함이 좋다. 62년 약속에 어긋나고 추진업무에 문제가 발생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 74년 유혹남비하는데 지출이 생긴다. 86년 좋은 조건이나 유리함이 있다고 성급함보다는 신중함이 이익이다.

39년 농·수산업은 새벽부터 바쁜 일과 계약안이 있다. 51년 청탁 또는 뇌물을 받으면 즉시 구설수에 오르거나 신변에 이상이 생긴다. 63년 자녀에 대한 경사나 막대한 일이 해소된다. 취업자는 직장소식도 온다. 75년 담당하면 휴식과 안정을. 재충전 필요하다. 87년 재물이나 이성문제도 고민을 하게 된다.

40년 직점투자로 사업장을 갖고자 한다. 창업 가능. 52년 인물이 높을수록 언어에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 언행은 그 사람의 품성이다. 64년 오늘 현실이 어려워도 내일을 준비하는 행동이 더 중요하다. 76년 대인관계가 원만하니 이를 적극 활용하라. 88년 학생은 봉사활동 또는 불우이웃을 돕는다.

41년 귀인의 도움으로 건강이 회복되고 일에 능력이 오른다. 53년 일이 증가되고 몸이 분주하다 습주는 절제가 필요하다. 65년 생각이 많거나 안절부절할 수 있으니 침착한 생각이 결단을 바르게 한다. 77년 외출이나 여행 등 활동력이 많아진다. 문안 안부 전화. 89년 호기심과 충동성이 강한 날. 지출이 따른다.

42년 아이디어로 승부하거나 기획력을 인정 받는다. 54년 급전이 필요하거나 자금이 필요한 날. 구설수나 안전사고 주의. 66년 목적이 있는 것이 있으면 노력하여 실력을 인정 받으려 한다. 78년 자기의사를 명쾌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용기라 한다. 90년 의욕이 증가하고 활력이 넘치며 분주하다.

43년 담당하던 일이 풀리거나 거래상사가 있다. 금전이나 매매건이 성사된다. 55년 계획을 세우고 창업업을 하고 싶어한다. 신규사업 희망 있다. 67년 한가지 일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 것. 79년 몸이 늦게까지 분주하고 할 일이 많다. 91년 일이 있으면 몸이 사방으로 분주하다.

44년 자영업은 지속적 발전이 있고 직장인은 언행에 신경, 조심해야. 56년 남의 일에 간섭시 구설 수를 주의하고 한다. 68년 갈등과 번민이 많다. 가정에선 금전적 문제. 미혼자는 부모와 마찰이 온다. 81년 가정에서는 마음이 불편하고 밖에선 기분이 증가한다. 93년 약속이 중도에 해지되니 일찍 출발하는 것이 좋다.

45년 나를 속사시키고 있는 형국이니 조금함을 버리고 여유를 가져라. 57년 문서변화나 하던 일을 변화를 주려고 한다. 69년 갈등과 번민이 많다. 가정에선 금전적 문제. 미혼자는 부모와 마찰이 온다. 81년 가정에서는 마음이 불편하고 밖에선 기분이 증가한다. 93년 약속이 중도에 해지되니 일찍 출발하는 것이 좋다.

46년 현재의 일이 힘들다고 변동하는 것보다는 자중함이 좋다. 58년 하는 일에 준비가 필요하니 주변정리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70년 애인 또는 친구와의 갈등이 오면 관용이 필요하다. 82년 애정에 희소식이 오기도 하고 선악도 생긴다. 94년 신용 약속 또는 돈과 관계된 일로 시비, 발생하니 조심해야 한다.

47년 찬스가 오면 포착하라. 애정문제가 다가온다. 59년 방해자가 생기니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경계하라. 71년 경쟁자가 많아 나를 바쁘게 하는 형국으로 노력한 만큼 결과가 온다. 83년 미혼자는 소개, 중매가 생기고 기혼자는 집안일에 분주하다. 95년 작은 아득이 있고 좋은 소식도 들려온다.